

첨부 - 동향

[한국블록체인협회 - 2021년 8월]

「디지털자산」 동향 보고서

2021. 9. 16.

목 차

1. 국내 · 외 디지털자산 규모 1
2.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4
3.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7
4. 국내 · 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디지털자산 동향 ..12

본 보고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時事報道)를 기초'로 하여
정리한 '참고용' 자료임을 밝힙니다.

1 국내 · 외 디지털자산 규모

□ 올 상반기 암호화폐 보유자 2억 1000만명

-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인용한 시사뉴스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 및 결제 플랫폼 기업 크립토닷컴은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보유자가 지난 1월 1억명에서 6월 2억 1000만명으로 증가해 5개월 만에 1억명이 넘게 순증함 (2021. 8. 1.)

* 출처 :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 보유자 2배 증가...알트코인 신규 유입 (시사뉴스 김성훈 8/1),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166463>

- ▶ 크립토닷컴의 조사에 의하면 올해 암호화폐 보유자(거래자)는 ▲ 1월 1억명 ▲ 2월 1억 6000만명에서 ▲ 5월 2억 3000만명 ▲ 6월 2억 2100만명으로 집계됨

□ 대학생 63.1%, 암호화폐 투자 자산으로 인식

- 코인데스크 코리아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이용자 2502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 인식과 투자 현황 등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에 참여한 대학생의 63.1%(1507명)는 암호화폐를 투자 상품으로 본다고 답함 (2021. 8. 4.)

* 출처 : 대학생 10명 중 6명, "암호화폐, 주식같은 투자자산" (코인데스크코리아 신재연 8/4),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51>

- ▶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인식한 집단의 상당수(82%, 1239명)는 실제 암호화폐 투자를 경험해 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투자금 규모는 ▲ 300만원 이상 (36.2%, 449명), ▲ 100만원 미만 (36.4%, 452명), ▲ 10만원 미만 (9%, 119명)으로 집계됨

□ 글로벌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 투자 548건, 87억 달러 기록

- 파이낸셜뉴스는 회계법인 KPMG가 발표한 ‘2021년 상반기 핀테크의 맥(Pulse of Fintech H1 2021)’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해 올 상반기 동안

전 세계에서 VC, 사모펀드, M&A 등을 통한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 투자가 548건, 87억 달러(약 10조 2000억원)를 기록함 (2021. 8. 15.)

* 출처 : 은행·VC·사모펀드도 ‘베팅’... 블록체인·가상자산 뛰어든 큰손 (파이낸셜뉴스 이설영 8/1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692334>

▶ KPMG에 따르면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글로벌 투자 규모는 2018년~2020년까지 72억 달러(약 8조 4000억원), 50억 달러(약 5조 8000억원), 43억 달러로 하락세를 보이다 올해 상승세로 전환됨

□ 100대 은행 중 55개 은행, 가상자산 투자

○ 블록체인 시장 데이터 제공업체 블록데이터(Blockdata)가 운용자산 상위 100개 은행 중 55개 은행이 은행 자체 또는 자회사를 통해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기술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2021. 8. 15.)

* 출처 : 은행·VC·사모펀드도 ‘베팅’... 블록체인·가상자산 뛰어든 큰손 (파이낸셜뉴스 이설영 8/15),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692334>

▶ 블록데이터는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 씨티그룹, 골드만삭스를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투자사로 분류하였으며, JP모건, BNP 파riba도 가상자산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다고 덧붙임

□ 전세계 가상자산 도입 규모, 전년 동기 대비 880% 증가

○ 체이널리시스는 154개국의 글로벌 가상자산 도입 상황을 수치화한 ‘2021 글로벌 가상자산 도입 지수 보고서’를 발표, 2.5점에 불과했던 2020년 2분기 전 세계 총 도입 지수 점수에 비해 올 2분기 말 총 점수는 24점을 기록해 글로벌 가상자산 도입 지수가 전년 동기대비 881%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함 (2021. 8. 24.)

* 출처 : 전세계 가상자산 도입 규모, 전년 동기 대비 880% 증가 - 체이널리시스 (디센터 도예리 8/24), <https://decenter.kr/NewsView/22QB9J2W6J>

▶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국가 및 국민들이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 뛰어들거나 도입 규모를 늘리고 있으며, 베트남, 인도, 파키스탄이 상위 3개국을 차지함, 해당 순위가 높을수록 개인들의 가상자산 이용도가 높고, 단순 트레이딩 보다는 실제 거래와 저축 등 경제 활동에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체이널리시스 측의 설명

* 출처 : 전세계 가상자산 도입, 1년간 10배 '경증' (파이낸셜뉴스 김소라 8/24),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14&aid=0004697025>

2 국내 · 외 국가별 CBDC 동향

□ 해 외

○ 미국

- 서울경제에 따르면 차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으로 거론되는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애스펜연구소 경제전략그룹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에 CBDC가 없는 상황을 상상할 수 없으며 CBDC가 존재하지 않는 미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고 밝힘 (2021. 8. 1.)

* 출처 : 美 연준서 “디지털달러 개발, 긴급하다” 주장 나와 (서울경제 박윤아 8/1),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0RCCPPL>

- ▶ 브레이너드 이사는 “디지털 달러는 코로나 19 대유행을 겪으며 CBDC의 필요성이 부각됐으며, 위기 상황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정부 지원금이 잘 전달되지 않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고 덧붙임

○ 중국

- 이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화상보(華商報)는 산시성 정부가 고속도로 요금소에 디지털 위안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것은 디지털 위안화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에 성공한 첫 사례라고 보도함 (2021. 8. 25.)

* 출처 : 디지털위안화 속도내는 중국,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성공 (이데일리 신정은 8/25),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194726629150928&mediaCodeNo=257&OutLnkChk=Y>

- ▶ 중국은 현재 산시성의 시안(西安)시 행정구역 내에서만 이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임

○ 우크라이나

- 내외경제TV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대통령은 지난 6월 의회에서 채택된 지불 서비스법(No. 1591-IX)에 서명했으며, 이로써 우크라이나 국립은행(NBU)은 CBDC 발행과 규제 샌드박스 채택 등과 같은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됨 (2021. 8. 2.)

* 출처 : 우크라이나 CBDC 가동, 스텔라루멘(XLM) 기반 스테이블 코인 나올까 (내외경제TV 정동진 8/2), <http://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2222>

○ 싱가포르

-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싱가포르에 6개, 미국에 4개, 유럽·호주에 5개 핀테크 기업 등 총 15개 시범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소매용 CBDC 발행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2021. 8. 31.)

* 출처 : 싱가포르 통화청, 연내 CBDC 발행 준비 끝낸다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8/31),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310>

- ▶ 싱가포르는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블록체인 친화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바이낸스와 체미니 등 170개의 가상자산 거래소는 물론 수백개의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들이 아시아 시장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 있음

○ 자메이카

- 디지털투데이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가이드의 보도를 인용, 자메이카 중앙은행인 बैंक 오브 자메이카(BoJ)가 총 2억 3000만 자메이카달러(JMD) 어치의 CBDC 발행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함 (2021. 8. 12.)

* 출처 : 자메이카 중앙은행 CBDC 발행 시동 (디지털투데이 추현우 8/12),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3160>

- ▶ बैंक 오브 자메이카는 현재 CBDC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범 사업이 종료되는 올해 12월부터 정식 발행을 시작할 예정
- ▶ 나이젤 클라크 재무 및 공공 서비스 장관은 “CBDC 발행은 자메이카 화폐 정책에서 획기적인 시도이며, 디지털 경제 창출에서 CBDC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 이라고 말했으며, 올 연말까지 CBDC 발행에 필요한 입법·행정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밝힘

□ 국 내

○ 한국은행 CBDC 모의실험 시작

-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8월 23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모의실험을 시작하고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으로, 이번 모의실험에는 카카오 자회사 3곳과 삼성전자, 삼성SDS 자회사 등이 참여하기로 함 (2021. 8. 23.)

* 출처 : 한은 CBDC 모의실험 시작...화폐시장 지각변동 올까 (파이낸셜뉴스 연지안 8/23), <https://www.fnnews.com/news/202108231324297621>

- ▶ 실제 모의실험 연구 사업은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고 신기술을 적용하는 두 단계로 진행될 예정임, 첫 단계로 연말까지 가상공간에서 CBDC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제조·발행·환수, 참가기관 전자지갑 관리 등 발권시스템 마련 후 가상환경에서 전자지갑 관리와 예금과의 교환, 송금 및 대금 결제 등 민간 주도 CBDC 유통을 위한 기본 기능을 구현하는 실험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두 번째 단계는 국가간 송금, 디지털자산 구매, 오프라인 결제 등 CBDC 유통 업무를 확장하고 관련 규제 준수 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로 진행될 예정

3 국내 · 외 국가별 디지털자산 동향

□ 해 외

○ 독일

- 코인데스크코리아는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인용해 독일의 기관 투자 펀드인 스페셜펀드(Spezialfonds)가 운용 자산의 20%를 암호화폐에 할당할 수 있는 법안(The Fund Location Act)이 지난 4월 독일 하원과 상원을 통과했으며, 독일 연방 재무부(bundesfinanzministerium)의 공표를 통해 8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함 (2021. 8. 2.)

* 출처 : 독일 기관 투자자, 코인 투자 가능해졌다 (코인데스크코리아 박근모 8/2), <http://www.coindesk.com/news/articleView.html?idxno=74714>

- ▶ 스페셜펀드는 독일 연기금과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만 투자가 가능한 펀드로 현재 운용 자산이 2조 1000억달러(약 2415조원)에 달하며, 약 4150억 달러 상당의 투자가 암호화폐에 할당될 수 있음

○ 미국

- 글로벌 이코노믹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카운티에 위치한 소도시 쿨 밸리(Cool Valley) 시장인 제이슨 스튜어트(Jayson Stewart)는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도시의 모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다는 계획을 언급했으며,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으로 비유하며 주민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제공할 것을 약속함 (2021. 8. 22.)

* 출처 : 미국 쿨 밸리 시장 전 주민에 비트코인 지급 계획 “50만 달러 될 때까지 팔지 말라”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8/22),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82213135996889ecba8d8b8_1/article.html?md=20210822131557_R

- 서울경제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의 보도를 인용, 미국 마이애미시가 8월 4일(현지시간) 자체 암호화폐인 ‘마이애미코인(MIA)’을 출시한다고 보도 (2021. 8. 3.)

* 출처 : 마이애미, 자체 암호화폐 ‘마이애미코인(MIA)’ 출시 (서울경제 홍유진 8/3),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1MRNGF5>

- ▶ MIA는 스택스(STX) 기반 시티코인(CityCoin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티코인은 시민들이 암호화폐를 통해 도시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지역 암호화폐 플랫폼이며, 누구나 채굴하거나 구매가 가능함, MIA를 통해 조달된 자금은 도시의 사회기반시설 확장 및 행사 등에 사용될 예정임

○ 우루과이

-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우루과이 후안 사르토리(Juan Sartori) 상원의원이 암호화폐를 기업의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남미 내에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함 (2021. 8. 5.)

* 출처 : [점심 브리핑] 암호화폐 가격 반등...우루과이, '암호화폐 결제 도입' 법안 발의 (서울경제 홍유진 8/5),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2KA4I47>

- ▶ 법안은 암호화폐와 관련해 ▲ 회사 간 암호화폐 거래 허용 ▲ 암호화폐의 소유, 보관 등의 인가 ▲ 암호화폐 및 유틸리티 토큰 발행 허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규정도 명시함
- ▶ 사르토리 의원은 “암호화폐를 유효한 지불 수단으로 취급할 것이며, 법률에 의해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 이라고 말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법에 명시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 밝혔음, 이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내로 편입하되, 지불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됨

○ 쿠바

- 지디넷 코리아는 미국 경제매체 CNBC 보도를 인용해 쿠바 중앙은행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다고 보도함, 쿠바 중앙은행은 디지털 통화 처리 방법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정할 계획이며, 국가가 암호화폐 운영 상황을 통제할 수 있고, 불법행위는 금지된다고 설명함 (2021. 8. 29.)

* 출처 : 쿠바, 비트코인 결제 수단 인정 (지디넷코리아 유혜진 8/29), <https://n.news.naver.co/m/news/article/092/0002232007?sid=105>

□ 국 내

○ 금융위원회

- 뉴스1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내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함 (2021. 8. 26.)

* 출처 : FIU 암호화폐 전담 가상자산검사과 신설...인력 14명 증원 (뉴스1 박기호 8/26), <http://www.news1.kr/articles/?4415083>

- ▶ FIU는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전담하게 되며,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임

- 디지털투데이에 따르면 27일 국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으며, 여야 의원들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을 전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자 이에 대해 고 후보자는 “위원장이 되면 다양하게 만나보고 여러 방안에 대해 토론해보겠다”고 답변함 (2021. 8. 27.)

* 출처 : “가계부채 ‘실수요자’ 챙기고 가상자산은 업계 목소리 듣겠다”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8/27), <http://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044>

- 8월 31일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식이 열렸으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거래 참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예측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고 시장과 신속히 공유하겠다”고 말함 (2021. 8. 31.)

* 출처 :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 “급증한 가계부채 대응에 정책역량 집중”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8/31), 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48076

○ 국회

- EBN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정무위원회,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일, 불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2021. 8. 3.)

* 출처 : 윤창현 의원,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 정상화법 발의 (EBN 이남석 8/3), <https://www.ebn.co.kr/news/view/1494777/?sc=Naver>

- ▶ 윤창현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은 ①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실명확인 계정 개설을 보장하며, ②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실명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함

- 스트레이트뉴스에 따르면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국회의원 가상자산규제 및 이용자 보호의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함 (2021. 8. 3.)

* 출처 : 배진교 의원, ‘가상자산규제 및 이용자 보호법’ 대표발의 (이제향 스트레이트뉴스 8/3), <https://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626>

- ▶ 해당 법안은 △ 가상자산사업에 따른 사업자와 이용자의 정의 △ 사업자 인가 요건, 인가취소요건 명시 △ 업무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 △ 예치기관의 예치금 예치 의무화 △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알선 및 중개 행위 금지, 거래소 자체발행 자산거래 제한 △ 거래정보 확인 불가능한 다크코인 매매·중개 금지 △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의성실, 손해배상, 거래방식 제한, 실명확인 등 의무 부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핀포인트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조명희 의원이 지난 4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이 없어도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 사업 신고를 가능하게 한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함 (2021. 8. 5.)

* 출처 : 조명희 의원 “실명계좌 없어도 거래소 사업신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핀포인트뉴스 강주현 8/5), https://cnews.pinpointnews.co.kr/view.php?ud=202108051113085857a029d22e5e_45

- ▶ 실명계좌를 신고 불수리 요건이 아닌 금융거래 요건으로 옮겨 실명계좌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소 신고를 금융당국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신고 유예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임

- ▶ 조명희 의원은 “특금법의 입법 취지로 볼 때, 실명계좌는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피기 위한 수단일뿐, 거래소 신고 수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실명계좌를 받기 어렵게 하고, 거래소 신고 조차 어렵게 하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함

4 국내 · 외 기업, 금융기관 및 투자자 디지털자산 동향

□ 해 외

○ JP모건

- 글로벌이코노믹 보도에 따르면 JP모건이 개인 고객들을 위한 비트코인 펀드를 포트폴리오에 새로 추가하고, 프라이빗 बैं킹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수탁 업체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과 함께 만든 새로운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한다고 밝힘 (2021. 8. 21.)

* 출처 : JP모건, 웰스 파고 등 비트코인 펀드 출시 신청서 SEC 제출 확인 '전성시대' 열리나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8/21),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82119041482749ecba8d8b8_1/article.html?md=20210821190714_R

○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

- 농업경제신문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펀드 그레이스케일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20일 기준 총 운용자산(AUM) 규모가 약 431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힘 (2021. 8. 21.)

* 출처 : 그레이스케일, 암호화폐 운용 자산 또 늘었다... 약 '431억' 달러 (농업경제신문 정지은 8/21), https://cnews.thekpm.com/view.php?ud=2021082117115498275cb205d37d_17

○페이팔

- 서울경제는 코인텔레그래프 등 외신을 인용해 글로벌 결제 서비스 회사인 페이팔(Paypal)이 암호화폐 관련 전문 인력의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페이팔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출시의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보도함 (2021. 8. 2.)

* 출처 : 페이팔은 "지금 암호화폐 전문가 채용 중"...결제 서비스 본격화되나 (서울경제 홍유진 8/2), <https://www.sedaily.com/NewsView/22Q17YGP28>

- ▶ 특히 아일랜드에서 6개 이상의 직무 관련 직원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는 아일랜드와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의 진출을 위한 전략적 발판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풀이됨

- 디지털데일리에 따르면 페이팔은 지난해 11월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미국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나 8월 22일(현지시간) 영국 거주 고객들이 페이팔을 통해 가상자산을 매매, 보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힘 (2021. 8. 23.)

* 출처 : 페이팔, 영국에서도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시작 (디지털데일리 박현영 8/23),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220506>

○ 골든트리

- 조세일보는 더 스트리트(The Street) 보도를 인용, 410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헤지 펀드 골든트리(Goldentree)가 최근 상당한 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이를 대차대조표에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함 (2021. 8. 2.)

* 출처 : 자산 47조 헤지펀드 골든트리, 비트코인 투자 합류 (조세일보 백성원 8/2),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08/20210802429716.html>

- ▶ 더 스트리트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 “골든트리 경영진이 암호화 솔루션과 블록체인 기술에 정통한 직원을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골든트리는 가상화폐 거래 및 블록체인 회사에 대한 벤처형 투자에 익숙하다” 고 보도함

○ 코인자

- 글로벌이코노믹에 따르면 호주에서 가장 오래 운영되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사용자가 현지 달러를 사용해 플랫폼에서 직접 디지털 자산을 구매, 판매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마스터카드 지원 카드’를 출시함, 해당 회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코인자의 카드는 최대 30개의 다른 암호화폐를 지원하며 사내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에게 반환되는 1%의 전환율을 특징으로 한다고 밝힘 (2021. 8. 3.)

* 출처 : 호주 코인자, 현지 달러 사용 디지털 자산 구매 ‘마스터카드 지원’ 암호화폐 카드 출시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8/3),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80312110988489ecba8d8b8_1/article.html?md=20210803121342_R

○ 웰스파고 बैंक

- 미국 최대 자산 운용사 중 하나인 웰스파고(Wells Fargo)가 자산 운용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투자를 제공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글로벌이코노믹은 이 회사의 대변인이 비즈니스 인사이더(Business Insider)에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해주었다고 보도함 (2021. 8. 4.)

* 출처 : ‘자산 클래스’로 성숙한 암호화폐...웰스파고도 골드만삭스 JP모건 이어 투자상품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수 8/4), https://news.g-enews.com/ko-kr/news/article/news_all/2021080400262484929ecba8d8b8_1/article.html?md=20210804002832_R

○ 인디펜던트 리저브

- IT조선 보도에 따르면 호주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인디펜던트 리저브(Independent Reserve)가 싱가포르 통화청(MAS)으로부터 싱가포르 지불서비스 법에 따라 규제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원칙적 승인’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인디펜던트 리저브는 싱가포르에서 가상자산을 통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2021. 8. 3.)

* 출처 : 호주 가상자산 거래소, 싱가포르서 디지털토큰 결제 운영 승인 받아 (IT조선 조아라 8/3), 출처 : http://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8/03/2021080300638.html

□ 국 내

○ 우리은행

- 디센터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국내 시중은행 가운데 최초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대비한 파일럿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함, 우리은행이 최근 발주한 CBDC 파일럿 프로젝트 구축 사업자 모집에 LG CNS가 최종 선정되었으며, 우리은행 디지털 금융 그룹장은 “CBDC 발행이 한국은행의 역할이라면, CBDC 유통은 시중은행의 역할”이라며 “사업자는 물론 은행 고객들이 CBDC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관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 배경을 밝힘 (2021. 8. 2.)

* 출처 : 우리은행, 금융권 최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디센터 도예리 8/2), <https://decenter.kr/NewsView/22Q172EVFR>

○ 삼성전자

- 한경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한국은행에서 추진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됨, 4일 미국 포브스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의 CBDC 모의실험 사업자로 선정된 카카오 컨소시엄에 삼성전자와 삼성SDS의 자회사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됨 (2021. 8. 4.)

* 출처 : [단독] 삼성전자, ‘디지털화폐 사업’ 뛰어들었다 (한경 김익환 8/4),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8040071i>